

## Session 20 King David: The Vow That Changed History (Ps. 132) 제 20장 다윗 왕: 역사를 바꾼 서원 (시 132편)

### I. REVIEW: THE LORD CHOSE JERUSALEM AS THE PLACE FOR HIS TEMPLE

복습: 주님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위한 장소로 택하시다

- A. After David conquered and secured Jerusalem, his first act as recorded in the Scripture was epic—he brought the ark to Jerusalem. David organized a national gathering that included 30,000 leaders to bring the ark to Jerusalem (2 Sam. 6:1-2).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안전하게 한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그의 첫 번째 행동은 놀라운 것이었다. 그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다윗은 국가적인 회합을 조직하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위해 30,000 명의 지도자들을 모았다.

<sup>1</sup>David gathered all the choice men of Israel, thirty thousand. <sup>2</sup>And David arose and went with all the people who were with him...to bring up from there the ark of God... (2 Sam. 6:1-2)

<sup>1</sup>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삼만 명을 다시 모으고 <sup>2</sup>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 (삼하 6:1-2)

- B. David sought to bring the ark to its rightful place of honor in the center of Israel's life in Jerusalem. The first thing David did after he put the ark in Jerusalem was put singers and musicians in place.

다윗은 법궤를 두기에 올바른 장소인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둔 이후에 첫 번째 한 일은 노래하는 자와 악기 다루는 자를 그 앞에 두는 것이었다.

- C. I believe that from his youth David understood that Jerusalem was the city chosen by God. He grew up in Bethlehem, only about five miles south of Jerusalem. After David killed Goliath in the valley of Élan, he cut Goliath's head off and walked about 10 miles to place his head in Jerusalem.

나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도시라고 이해하고 있었다고 믿는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약 5 마일 (8km) 떨어진 곳인 베들레헴에서 자라났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인 이후, 그는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 10 마일(16km) 정도 떨어진 곳인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곳에 두었다.

- D. As a young man, David vowed to dedicate his life to finding a “dwelling place” for God (Ps. 132). David's vow included establishing a building for the ark to be placed and for God's power and presence to be manifested. The ark was associated with the release of God's power and presence.

젊은 청년이었던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한 “처소”를 찾는 것에 드리겠다고 서원했다 (시 132 편). 다윗의 서원은 예루살렘에 법궤를 두며,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임할 장소를 세우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드러나는 것과 연관이 있었다.

<sup>1</sup>LORD, remember David and all his afflictions; <sup>2</sup>How he...vowed to the Mighty One of Jacob: <sup>3</sup>“Surely I will not go into the chamber of my house, or go up to the comfort of my bed;

<sup>4</sup>I will not give sleep to my eyes...<sup>5</sup>Until I find a place [a temple to house the ark] for the LORD, a dwelling place for the Mighty One of Jacob.”<sup>6</sup>Behold, we heard of it in Ephrathah [Bethlehem]; we found it in the

fields [Kirjath Jearim]... <sup>8</sup>Arise, O LORD, to Your resting place... (Ps. 132:1-8)

<sup>1</sup>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sup>2</sup> 그가 ...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sup>3</sup>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 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sup>4</sup>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 <sup>5</sup> 여호와와 처소 [법궤를 둘 성전]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sup>6</sup> 우리가 그것이 예브라다 [베들레헴]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기랏여아림]에서 찾았도다 <sup>8</sup>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시 132:1-8)

- E. A “resting place” (v. 8, 14)—or a “dwelling place” (v. 5, 13)—for God speak of the same reality. In principle, it can refer to places where *the fullness* of God’s purpose for a specific time is released.

하나님을 위한 “평안한 곳”(8, 14절) 또는 “처소”(5, 13절)는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다. 원론적으로 이는 특정한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의 충만하게 부여되는 장소를 말한다.

- F. **Ephrathah:** Ephrathah and Bethlehem are the same place (Ruth 1:2; 4:11; 1 Sam. 17:12; Mic. 5:2). David grew up in Ephrathah hearing “revival stories” of God’s power associated with the ark (v. 6). It marked him in his youth.

예브라다: 예브라다와 베들레헴은 동일한 장소이다 (룻 1:2; 4:11; 삼상 17:12; 미 5:2). 다윗은 예브라다에서 법궤와 연관된 하나님의 능력의 “부흥의 스토리들”을 들으며 자라났다 (6절). 이는 젊은 시절에 그에게 각인되었다.

- G. **Found it in the fields:** The ark sat in the forest village of Kirjath Jearim (lit. *the fields of the forests*), where it lay neglected for about 70 years. Bethlehem was 10 miles from Kirjath Jearim.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법궤는 기랏여아림(문자적으로, 숲 들판)이라고 불리는 작은 숲의 마을에 있었다. 법궤는 70년간 이곳에서 잊혀져 있었다. 베들레헴은 기랏여아림에서 10마일 정도 (16km) 떨어진 곳이었다.

- H. **Jacob:** Jacob experienced an open heaven (Gen. 28) and wrestled with an angel for the full breakthrough of blessing (Gen. 32). The “God of Jacob” (v. 1, 5) speaks of the *God of the open heaven* and the *God who gives more* when His people wrestle with Him for it.

야곱: 야곱은 열린 하늘을 경험했으며 (창 28장), 충만한 축복이 임하기까지 천사와 씨름을 했다 (창 32장). “야곱의 하나님”(1, 5절)은 열린 하늘의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이 축복을 구하며 그와 씨름할 때 더욱 많이 주시는 하나님을 말한다.

- I. **Until:** The “until” in verse 5 is similar to the “until” in Isaiah 62:7, when intercessors cry out “until” Jesus establishes His throne (dwelling place) in Jerusalem making it a praise in the earth (Jer. 3:17).

발견하기까지: 5절의 “발견하기까지”는 사 62:7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보좌를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렘 3:17) 중보자들이 부르짖는 것에서 사용된 표현과 비슷하다.

<sup>6</sup>*On your walls, O Jerusalem, I have appointed watchmen; all day and all night they will never keep silent. You who remind the LORD, take no rest for yourselves; <sup>7</sup>and give Him no rest until He establishes and makes Jerusalem a praise in the earth. (Isa. 62:6-7 NAS)*

<sup>6</sup>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너희는 쉬지 말며 <sup>7</sup>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 62:6-7)

- J. God’s habitation, or resting place, is in His people (Eph. 2:22). The Spirit strives with those who resist His leadership, to convince them to obey (Gen. 6:3). Thus, a “resting place” in principle may be a place where the Spirit “rests” in the midst of His people who live in agreement with His will. It is a place where God’s purpose is done to the fullest measure ordained by God in that season.

하나님의 거처, 혹은 안식처는 그분의 백성 안에 있다 (엡 2:22). 성령님은 그분의 리더십을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싸우고 계신다 (창 6:3). 따라서, “안식처”는 원칙적으로 그분의 뜻에 동의해서 사는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님이 “안식하시느” 장소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시근에 대해 계획하신 그분의 뜻이 충만한 분량으로 성취되는 장소를 말한다.

<sup>3</sup>*The <sup>1</sup>LORD said, “My Spirit shall not strive with man forever...” (Gen. 6:3)*

<sup>3</sup>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 (창 6:3)

- K. The great revivals throughout history can often be traced back to various groups in a nation that seek to live as a holy, praying community seeking “revival” or as a glorious dwelling place of God.

대 부흥은 한 나라 가운데 “부흥”을 구하는 거룩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혹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처소로서 살기를 추구하는 다양한 그룹들을 거슬러 올라가며 그 역사를 찾을 수 있다.

- L. David served the *fullness* of God’s purpose doing *all* His will in his generation (Acts 13:36). David’s lifework was to establish a dwelling place for God in his generation. He prayed for Jerusalem to be a city where God’s purpose would be released to the full measure ordained by God.

다윗은 자신의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의 **충만함**을 위해 섬겨나갔다 (행 13:36). 다윗의 일생의 사업은 자신의 세대에 하나님을 향한 처소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뜻이 부어지되 그분이 계획하신 충만한 분량으로 부어지는 도시가 되기를 기도했다.

<sup>36</sup>*For David, after he had served the purpose of God in his own generation, fell asleep [died]...*” (Acts 13:36)

<sup>36</sup>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죽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행 13:36)

- M. Find out what God is doing in your generation and then fully throw yourself into it. Determine to be a part of a community of radical believers who will not stop until the fullness of God’s purpose is released. Be a revivalist and/or part of a “*revival company*” that is fully dedicated to Jesus.

당신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아내고, 이것에 당신의 전부를 드리라. 하나님의 뜻의 충만하게 부어지기까지 멈추지 않을 과격한 믿는 자들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로 결정하라. 부흥을 구하는 자가 되며,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된 “**부흥 공동체**”의 일원이 되라.

- N. All over the earth in this hour, the Lord is raising up groups to live before Him in a way so to be used as catalysts to inspire others to love, obey, and seek God with all their heart. *Never* believe your group is the only one that is dedicated. The Lord told Elijah that there were 7,000 faithful ones (1 Kgs. 19:18). I am sure there are many more than 7,000 communities of radical believers on earth.

주님은 이 시간 전 세계에서, 다른 이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고, 추구하도록 할 촉매제와 같이 사용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그룹들을 일으켜 세우고 계신다. 당신의 그룹이 이에 헌신된 유일한 그룹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말라. 주님은 엘리야에게 7,000명의 신실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왕상 19:18). 나는 지구 상에 7,000개가 넘는 과격한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있다고 확신한다.

## II. DAVID'S SACRED VOW (PS. 132:1-6)

### 다윗의 거룩한 서원 (시 132:1-6)

- A. The psalmist knew that God was moved by David's commitment so he prayed that God would remember it. We are called to remember God's promises, but here God is called to remember a man's dedication—remember the vow David made, how he pressed in to You, O God!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다윗의 헌신에 마음이 움직이신 것을 알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이를 기억하시기를 기도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을 향해 한 사람의 헌신을 기억하시기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 다윗이 했던 서원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당신에게 전심을 다해 나아갔습니다!

<sup>1</sup>*LORD, remember David and all his afflictions;* <sup>2</sup>*How he...vowed to the Mighty One of Jacob:* <sup>3</sup>*“Surely I will not go into the chamber of my house, or go up to the comfort of my bed;*  
<sup>4</sup>*I will not give sleep to my eyes...<sup>5</sup>Until I find a place for the LORD, a dwelling place for the Mighty One of Jacob.”* <sup>6</sup>*Behold, we heard of it in Ephrathah [Bethlehem]... (Ps. 132:1-6)*

<sup>1</sup>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곁손(한글KJV: 고난)을 기억하소서 <sup>2</sup> 그가 ...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sup>3</sup>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 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sup>4</sup>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 <sup>5</sup>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sup>6</sup>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 [베들레헴]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 (시 132:1-6)

- B. **Vow:** David's vow is expressed in verses 3-5. Believers throughout history have embraced the spirit of this vow. A vow to be wholehearted in seeking for the fullness of God's purpose—this vow is at the heart of the end-time revival as well as the missions and prayer movement.

**서원:** 다윗의 서원은 3-5절에서 볼 수 있다. 역사 가운데 성도들은 이 서원의 정신을 받아들였다. 이 서원은 하나님의 뜻의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을 전심으로 추구하기로 하는 서원이며, 이는 마지막 때 부흥의 중심에 있는 서원이자 선교와 기도 운동의 중심에 있는 서원이다.

- C. **Afflictions:** The vow that David made was costly and caused him pressure and persecution. This prayer is that God would remember the resistance, difficulty, and reproach that David endured.

**고난:** 다윗이 했던 서원은 희생이 따르는 것이었고, 이로 인해 그는 어려움과 핍박을 받았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견딘 반대와 어려움, 고난을 기억하시라는 기도이다.

- D. **David's house, bed, and sleep:** David had a higher priority than building his own house—his own comfort, family, ministry, calling, and finances. David's *house* spoke of his domestic life and personal resources. His *bed* spoke of his personal comfort. *Not giving sleep to his eyes* spoke of pouring out his strength sometimes for long hours contending to see God's will fully done.

다윗의 집, 침상, 잠: 다윗에게는 자신의 집, 즉 자신의 편안함이나 가족, 사역, 부르심, 재정들보다 더 높은 우선 순위의 일이 있었다. 다윗의 집이란 그의 가정 생활과 개인 소유를 말한다. 그의 침상은 개인적인 안락함을 말한다. 그의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때로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그의 힘을 쏟는 것을 말한다.

### III. THE SPIRIT OF DAVID'S VOW (PS. 69)

#### 다윗의 서원 안에 있는 정신 (시 69 편)

- A. David's vow was not recorded in Scripture, but it was well known to those who knew him. In Psalm 69:7-12 we gain insight into his vow. David described there the afflictions that he endured from his youth related to his zeal for God's house—and his lifestyle because of it.

다윗의 서원은 성경에 직접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를 알았던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었다. 우리는 시 69:7-12절을 다윗의 서원을 더 잘 알 수 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성으로 인해, 그가 젊었을 때부터 견뎌야 했던 고난과 이로 인해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묘사했다.

*<sup>7</sup>For Your sake I have borne reproach; shame has covered my face. <sup>8</sup>I have become a stranger to my brothers, and an alien to my mother's children; <sup>9</sup>because zeal for Your house has eaten me up, and the reproaches of those who reproach You have fallen on me. <sup>10</sup>When I wept and chastened my soul with fasting that became my reproach...<sup>11</sup>I became a byword to them. <sup>12</sup>Those who sit in the gate speaking against me...I am the song of the drunkards. (Ps. 69:7-12)*

<sup>7</sup>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sup>8</sup>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sup>9</sup>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sup>10</sup>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sup>11</sup>내가 굶은 베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 거리가 되었나이다 <sup>12</sup>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시 69:7-12)

1. **Reproach:** David bore reproach because of his zeal for God (v. 7, 9, 10). Many believers draw back because of the fear of man as they cannot bear the reproach.

비방: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비방을 견뎌냈다 (7, 9, 10절). 많은 성도들은 비방을 견딜 수 없어서, 사람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난다.

2. **Shame:** The shame of past failure and weakness did not stop David (v. 5-6).

수치: 과거의 실패와 연약함으로 인한 수치심은 다윗을 멈추지 못했다 (5-6절).

3. **Stranger:** David's seven older brothers treated David like a stranger, as if he were not in their family because of what he believed (1 Sam. 16:10). They rejected and accused him of being filled with pride and delusion because he was so zealous for God (1 Sam. 17:28).

객: 다윗의 일곱 형제들은 다윗이 믿고 있었던 것 때문에 (삼상 16:10) 그를 마치 가족의 일원이 아닌 낯선 사람, 객과 같이 취급했다. 그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너무도 열심이였기에, 그가 교만과 망상에 가득 차 있다고 정죄했다 (삼상 17:28).

4. **Zeal:** David bore reproach because of his zeal for God's house or temple (v. 9). They mocked David because he had a vision to see a breakthrough in his day. We must zealously stand for what God is zealous for in this generation.

**열성:** 다윗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향한 열성으로 인해 비방을 견뎠다 (9절). 그들은 다윗을 조롱했는데, 이는 그가 자신의 날에 돌파를 보겠다는 비전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 가지고 계신 열심에 대해 열심을 가지고 세워나가야 한다.

5. **Fasting:** David was mocked for fasting that God's house would one day be filled with glory (v. 10). His brothers laughed at his vision and lifestyle.

**금식:** 다윗은 하나님의 집이 영광으로 가득 찰 날을 두고 금식하였기에 조롱을 당했다 (10절). 그의 형제들은 그의 비전과 삶에 대해 비웃었다.

6. **Byword:** David became a byword to his family and friends (v. 11). They told jokes about him because of the intensity with which he sought God.

**말거리:** 다윗은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의 말 거리가 되었다 (11절). 그들은 그가 하나님을 너무도 강렬히 추구하는 것에 대해 농담을 했다.

7. **Sit in the gate:** The spiritual and political leaders in his community spoke against him.

**성문에 앉은 자가:** 그가 속해있던 공동체의 영적, 정치적 지도자들은 그를 반대하는 말을 했다.

8. **Drunkards:** In the taverns, the drunkards mocked him with songs about his zeal for God.

**독주에 취한 무리가:** 선술집의 술에 취한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을 조롱하는 노래를 불렀다.

B. There are various reasons why sincere believers draw back from seeking God with zeal.

충성되고 신실한 성도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는 것에서 물러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1. Fear of criticism from others in the body of Christ steals much from some who sincerely want to press into God. They give up their vision because of wanting people to like them.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이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나아가고자 원하는 이들로부터 많은 것을 빼앗아간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원하는 마음 때문에 비전을 포기한다.

2. Some draw back because of the love of comfort—they want things to be easier.

어떤 이들은 편안함을 사랑한 나머지 뒤로 물러난다. 그들은 일이 쉽게 처리되길 바란다.

3. Some draw back because they are fixated on their ministry growing—it takes too much time away from ministry networking, and increasing their ministry profile.

어떤 이들은 사역을 성장시키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뒤로 물러난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일은 사역 네트워크를 만들고 사역이 더욱 주목 받게 하는 데에 쓸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해버린다.

4. Some draw back because they want more money—seeking God diligently takes much time. The time and decisions involved in going hard for God sometimes affects our finances.

어떤 이들은 더 많은 돈을 원하기 때문에 뒤로 물러난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추구하는 것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을 향해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위한 시간과 결정들은 때로 우리의 재정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 IV. A TWOFOLD BREAKTHROUGH

##### 두 가지 돌파 (BREAKTHROUGH)

- A.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Scripture teaches about “breakthrough”—it describes a twofold breakthrough. Jesus accomplished a full breakthrough for us *in the spirit realm*, and we partner with Him for a breakthrough of the fullness of His purpose *in the natural realm*.

성경이 “돌파”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성경은 두 가지 돌파에 대해 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영적인 영역에서** 충만한 돌파를 이뤄내셨으며, 우리는 그분의 뜻이 **자연계 가운데** 충만하게 돌파되는 것을 위해 그분과 동역해 나간다.

- B. Paul’s declaration that we are a new creation in Christ has vast implications (2 Cor. 5:17). We receive the very righteousness of God (2 Cor. 5:21). All things pertaining to our born-again spirit have been made new. We are freely accepted by God, have authority in Jesus’ name, and have the indwelling Spirit so that we may effectively resist sin, sickness, and Satan.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바울의 선포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고후 5:17).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가 되었다 (고후 5:21). 우리의 거듭난 영의 모든 부분은 새롭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 없이 받으셨으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고,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을 소유함으로 죄와 병, 사단에 대해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게 되었다.

<sup>17</sup>*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old things have passed away...all things have become new...*<sup>21</sup>*that we [our spirit]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2 Cor. 5:17-21)

<sup>17</sup>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sup>21</sup>... **우리** [우리의 영]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5:17)

- C. We have *confidence* in the breakthrough that fully occurred in the spirit because of Jesus’ death. We *contend* for breakthrough in the natural so that God’s purpose will be fully released on earth. That is, we have *confidence* in what Jesus did, so we *contend* that it be openly manifested on earth.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영적인 영역에서 충만하게 일어난 돌파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자연계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는 것을 위해 **싸워나가야 한다**. 정리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확신**을 가지며, 이 일이 이 땅 가운데 우리 눈 앞에 이뤄지는 것을 위해 **싸워나가야 한다**.

1. The breakthrough in the spirit is seen by believers with eyes of faith.  
영적인 영역에서의 돌파는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통해 볼 수 있다.
2. The breakthrough in the natural can be seen by unbelievers with natural eyes.

자연계 영역에서의 돌파는 믿지 않는 자들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다.

- D. God offers greater measures of grace for those who humbly seek for it with all of their heart. We do not earn a greater measure of grace, but *position ourselves* to freely experience more of it.

하나님께서는 더 큰 분량의 은혜를 전심으로 겸손하게 구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다. 우리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분량을 더 크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는 있다.

<sup>6</sup>*He gives a greater grace...God...gives grace to the humble... (Jas. 4:6, NAS)*

<sup>6</sup>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약 4:6)

<sup>33</sup>*With great power the apostles gave witness...and great grace was upon them... (Acts 4:33)*

<sup>33</sup>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행 4:33)

<sup>2</sup>*Grace...be multiplied to you in the knowledge of God...<sup>18</sup>grow in grace... (2 Pet. 1:2, 3:18)*

<sup>2</sup>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앞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sup>18</sup>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 (벧후 1:2, 3:18)

- E. Some confuse these two dimensions of breakthrough and thus are *content* with far less than what Jesus made available. They are *content* with Jesus' breakthrough in the spirit regardless of the measure they experience in the natural. Set your heart to *contend* for the fullness of all that God has ordained for your generation—always seek a double portion of what you currently walk in.

어떤 이들은 이 두 가지 돌파에 대해 혼동을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만족하곤 한다. 그들은 자연계의 영역에서 어떤 분량을 경험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영적인 영역에서 돌파하신 것에 만족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세대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이 충만하게 이뤄지도록 싸워나가기로 마음을 정하라. 항상 당신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의 갑절(두 배)를 구하라.

- F. Some reduce their definition of revival so that it makes no demands on their life. Do not dumb down your vision for a *full* breakthrough of revival. Do not be comforted by the religious rhetoric that claims you are *now* walking in the fullness of all that has been made available.

어떤 이들은 부흥의 정의를 축소시켜서, 이를 그들의 삶에서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부흥의 충만한 돌파를 위한 당신의 비전을 단순화시키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얻을 수 있는 모든 충만함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는 종교적인 수사어구에 위안을 받지 마십시오.

- G. David's heart was gripped with something bigger than his personal comfort and promotion. There is something bigger than our music or preaching ministry, or marketplace assignment, etc.

다윗의 마음은 자기 자신의 편안함이나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큰 것에 사로잡혀 있었다. 우리에게는 음악이나 설교 사역, 사업 등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있다.



- H. God told Solomon that his father David “did well” in seeking to build His house (Mt. 25:21). It was in David’s heart to build a temple in Jerusalem to house the ark of the covenant. God was moved by the fact that David was so moved to do this. David wanted more than a tent for the ark. But the Lord told David no, because building the temple was ordained for Solomon’s day.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분의 집을 짓기를 추구하는 것에 있어 “잘 하였다(좋도다)”고 말씀하셨다 (마 25:21). 다윗의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 일을 너무도 하기를 원했던 것에 마음이 움직이셨다. 다윗은 궤를 장막에 두는 것 이상을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성전을 짓는 것은 솔로몬의 때를 위해 예비된 것이기에, 다윗에게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sup>8</sup>*The LORD said to my [Solomon] father David, “Whereas it was in your heart to build a temple for My name, you did well in that it was in your heart.” (2 Chr. 6:8)*

<sup>8</sup>여호와께서 내 [솔로몬]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대하 6:8)